

광주·전남 주식투자 줄고 1인당 보유수는 늘어

투자자 23만명...전년보다 2% 감소

1인당 소유주식 5063주 3.6% 증가

광주지역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실질주주 수는 줄고 1인당 평균 소유주식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이 7일 '광주·전남지역 주식투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2012년 12월 결산사의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 등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소유자) 수는 23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2% 감소했

다. 이는 국내 전체(470만명) 실질주주 수의 4.9%를 차지하는 것이다. 1인당 평균 소유주식수는 5063주로 전년(4886주)보다 3.6% 늘어났다. 실제 투자자 중 개인주주는 23만2953명으로 법인과 외국인을 합한 전체 주주 수의 99.8%를 차지하고 개인주주가 차지하는 소유 주식 비율은

91.1%에 달해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비중이 매우 높았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행사별 실질주주수가 2000명 이상인 회사수는 15개로 나타났다. 회사별 실질주주 수는 금호산업이 4만1230명으로 가장 많고 금호타이어(1만8820명), 대유신소재(1만6883명), 파우(1만3764명), 대우이티브(1만2299명) 등의 순이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실질주주 수 비중은 광주 2.7%(12만8000명), 전남 2.2%(10만4000명)로 전년(광주 2.7%, 전남 2.2%)과 같았다. 서울이 146만명(31.1%)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21.6%), 부산(6.8%), 경남(5.5%), 대구(4.7%) 등의 순이었다. 개인 실질주주의 소유주식 수는 광주가 6억5477만주, 전남이 5억2761만주로 각각 전년(광주 6억4211만주, 전남 5억2239만주)보다 소폭 증가했다. 개인실질주주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7만5955명(32.5%)에 3억9804만주(37.0%)로 가장 많고, 이어 50대 5만6513명(24.3%)에 3억251만주(28.1%), 30대 4만9178명(21.1%)에 2억199만주(18.8%), 60대 2만3912명(10.3%)에 1억910만주, 20대 1만3422명(5.8%)에 3134만주(2.9%), 70세이상 9460명(4.1%)에 2825만주

(2.6%) 등의 순이며 20세 미만 미성년자도 4513명(1.9%)이 544만주(0.5%)를 소유했다. 개인 실질주주의 남녀 비율은 남성 14만4770명(62.1%)에 7억7812만주(72.2%), 여성 8만8183명(37.9%)에 2억9857만주(27.8%)로 집계됐다. 이밖에 실질주주의 지역별 분포는 광주시 북구가 4만200명(17.3%)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시 서구 3만2800명(14.1%), 광주시 광산구 2만6900명(11.6%), 여수 2만3300명(10.0%), 순천 2만900명(9.0%) 등의 순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신보재단, 여수지점 개점식



전남신보재단(이사장 이계연)은 7일 오전 여수상공회의소 5층에서 여수지점 개점식을 갖고 여수와 광양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한 보증서비스를 시작했다. <전남신보재단 제공>

산단공 호남본부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가 8일부터 호남권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계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을 신청하면 청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청년인턴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면 된다.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인턴 약정 임금의 50%, 6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하며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390만원(월 65만원)까지 일시불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kic.onjob.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산단공 호남권본부는 올해 광주·전남, 전북 등 호남권 지역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현수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 본부장은 "이번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을 계기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얻고 청년들이 호남권의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정부 "가격 인하품목 더 찾아라"

대형마트 3사 임원 초청 물가안정 대책회의

정부가 유통업체 등에 물가 안정을 위해 좀 더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식경제부는 7일 정재훈 산업경제실장 주재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 부사장급 임원을 불러 비공개로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경부 유통물류과·석유산업과·가스산업과·전력진흥과·미래생활산업과 실무자와 한국소비자원 고위급도 참석해 유통구조 개선 등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경부는 최근 대형마트가 각종 할인 행사를 여는 등 물가를 의식한 유통

직임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더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가격 안정 정책을 계속하되 업체별 특성을 살려 추가 인하 품목을 발굴하라고 요청했다.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 기조를 고려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계속 펼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스마트컨슈머'의 가격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품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구성했는데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가격을 중심으로 한 평가

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대통령 취임 직후 대형마트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그만큼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통업체들은 앞다투어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주 2200여 품목 할인행사를 끝내자마자 7일부터 새로운 할인행사에 돌입했다. 앞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박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 부담이 완화되도록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하자 다음날인 28일부터 일제히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光銀 설 자금 2400억원 대출... 목표 초과

광주은행은 설명절 기간(1월7일~2월25일) 추진한 특별자금 대출 집계 결과 신규 2400억원, 만기연장 3900억원의 지원실적을 나타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은행의 설명절 특별자금대출은 설명절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신규자금 2000억원, 만기연장 3000억원을 목표로 편성,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이정화 광주은행 기업영업전략부 부장은 "이번 특별자금대출이 지역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골목상권살리기 보증재단 특별출연 등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미국산 과일 수입이 급증한 가운데 소비자들 한 매장서 오렌지를 고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오렌지·포도 수입 급증... 농가 치명타

관세 인하로 수입액 33% ↑...감귤 소매가 43% 떨어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미국산 오렌지, 포도의 수입이 크게 늘어 국내 과일재배 농가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후 연말까지 미국산 오렌지 수입액은 1억48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4% 급증했다. 오렌지는 3월부터 8월까지 계절관세가 적용돼 기존 50%였던 관세가 30%까지 떨어졌다.

오렌지의 뒤를 이어 수입이 급증한 것은 체리였다. 작년 3월5일~12월31일 수입액이 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8% 증가했다. 포도 수입도 21.6% 늘어 같은 기간 수입액이 2천600만달러에 달한다. 체리는 24%의 관세가 완전 철폐됐다. 포도는 10월 16일부터 4월까지 계절관세가 적용돼 기존 45%였던 관세가 24%로 낮아졌다. 미국산 과일 수입의 급증은 국내산

과일 소비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대상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분의 1은 미국산 오렌지나 체리 구입을 늘리는 대신 국내산 과일의 소비를 줄였다고 답했다. 오렌지는 딸기, 감귤 등 겨울·봄철 과일을, 체리는 포도, 자두, 참외 등 여름철 과일 소비를 대체했다. 더구나 올해 3월 15일부터는 오렌지 계절관세가 30%에서 25%로 추가 인하돼 시장 판매가격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포도 관세도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연합뉴스

폐업 자영업자 절반은 도소매·음식점업

1월 자영업자수 2만여명 줄어 18개월만에 첫 감소

2011년 개인사업자 폐업의 50.3%는 도·소매와 음식점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에서 경기 약화의 충격을 크게 받는 자영업자가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1년 국제통계연보로는 음식점업에서 1년간 18만9000명이 창업하고 17만8000명이 폐업해 창업 대비 폐업률(94.3%)이 전체 평균(85.0%)을

크게 웃돌았다. 기재부는 영세 자영업 분야의 파장 경감이 치열해지면서 구조조정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2만1000명 줄어 18개월 만에 감소했다. 음식점업(-2만8000명)과 도소매업(-2만8000명)이 가장 크게 위축됐다. 자영업자 증가세 둔화에는 인구 효과가 작용했다. 베이비붐 세대

(1955~1963년)가 올해부터 모두 50대로 진입해 은퇴 후 자영업 창업에 활발한 50대 이상 인구 증가 폭이 줄었다. 청년 연장과 퇴직 후 재취업으로 임금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늘어 남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자영업자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 기대여명이 10년 전보다 커졌고 기존 자영업자의 근무기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영업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실업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급격한 감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연합뉴스

박종진
캐도난마

매주 월~금 오후 4시 50분

뉴스A

매주 월~금 밤 9시 50분

이영돈
먹거리X파일

매주 금 밤 11시

CHANNEL A

박종진 | 채널A 보도본부 경제부장
기자

이영돈 | 채널A 제작담당상무
프로듀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